

봄 끝자락 멋과 흥 넘치는 '남원 춘향제' 보러가세요~

25~29일 광한루원·요천 일원...4개 분야 47개 프로그램 선보여
패션쇼·춘향선발·국악대전 등 개최...첨단+전통 야간쇼 관람도

제93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25일 개막해 닷새 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펼친다. 춘향제는 1931년 처음 개막해 매년 봄 개최하는 행사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축제 마당이다. 남원 춘향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제93회 남원 춘향제는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오는 25일 개막해 29일까지 5일간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펼친다. 올해 축제는 '전통과 첨단'의 빛, '사랑과 낭만의 길', '공연과 체험의 멋', '먹거리와 국악의 흥' 등 4개 분야에 걸쳐 4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춘향제향과 한복패션쇼,

삼도농악 한마당 등을 연다. 26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한국 최고의 전통미인을 뽑는 전국춘향선발대회 등을 개최한다. 27일 오후 7시 완월정 특설무대에서는 안숙선 판소리 명창, 장윤정, 소명, 이찬원, 양지은, 김다현 등 가수 10여명이 선보이는 '춘향달빛콘서트'를 선보인다. 제50회 춘향국악대전은 26~27일 예선을 거쳐 28일 완월정 무대에서 본선을 치른다.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는 춘향국악대전 우승자들과 가수 송가인이 출연해 특별공연을 펼친다. 메인 주제인 '전통과 첨단'의 빛'에서는 전통 꽃등을 체험하고 드론의 화려한 야간쇼를 관람할 수 있

다. 축제에 참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꽃등을 들고 거닐며 축제의 낭만적인 밤 풍경을 연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요천 벚꽃길과 둔치 주변에는 발광다이오드(LED) 포토존을 설치하고 승월교 외벽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화려한 영상을 연출한다. 밤하늘을 수놓을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와 드론이 펼치는 야간쇼가 화려함을 더해 전통과 첨단의 조화가 어우러질 예정이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남원 춘향제는 우리나라 전통 축제이지만 최근에는 세대를 넘나들어 모든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승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한층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MZ(1980~2000년 출생)세대를 비롯해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2022년 제92회 춘향제 춘향선발대회 모습. <남원시 제공>

고창 고향사랑기부금, 4개월만에 2억원 돌파

답례품 장어·고구마·땅콩 인기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2억원을 돌파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제도시행 4개월여 만에 기부금 총액이 2억원을 넘어섰고 이중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고창 특산품인 장어, 고구마, 땅콩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기부금 총액이 2억원을 돌파하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민과 출향인을 잇는 고향사랑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고창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발굴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 2억원 돌파 기점의 고액기부자는 모성건설 김영산 대표였다. 군에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위해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대표는 아산면 운곡마을 출신으로 광주에서 건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애향인이다. 김영산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창의 새로

운 활력을 주고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5억 투입 화분·꿀 생산 장비 등 지원...나무 1만본 식재도

정읍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사업비 5억원을 긴급 투입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는 5월 한 달간 고품질 양봉기기자재 지원사업과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사업,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양봉 사육환경 확보에 주력한다. 보조먹이(설탕), 소조광, 자동탈봉기, SD저항성도종벌, 유채화분, 전동채밀기, 벌꿀소분기, 저온저장고, 꿀벌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또 품목 구입비를 지원해 꿀 생산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추가로 밀원수 보급을 위해 웅동면 상산리 8ha 면적에 총 1억4000만원을 들여 아까시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1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실종 현상으로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꿀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공익적 산업인만큼, 양봉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체납액 징수' 행정력 총동원

차량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

정읍시가 오는 6월2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정읍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51억9600만원으로, 시는 총 체납액의 20%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순문국 정읍시 세정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집행 준수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발달장애인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예우' 10월까지 전북 순회

마술 등 체험으로 집중력 높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고 편안한 클래식 음악회가 최근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렸다. '방울 토크 음악 토크'로 이름 붙인 이번 음악회는 발달장애인이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을 공연에 담았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국악, 현대적 마술 등을 선보여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을 선사했다. 음악회를 주최한 비영리단체 예우는 2020년 처음으로 전북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한 공연을 말한다. 예우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6월 고창군, 7월 순창군, 8월 진안군, 9월 정읍시, 10월 익산시 등



배리어프리 클래식 공연. <예우 제공>

에서 배리어프리 공연을 열 예정이다. 여섯 차례 순회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순회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예우의 유튜브 채널(yeiwo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예지 예우 대표는 "대다수 배리어프리 공연이 신체적 장애인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